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한국 교원양성과정에 주는 시사점”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TE(Ewha Teachers in Europe)

목 차

I . 서론	3
1. 탐사배경	
2. 탐사주제 및 목표	
3. 탐사일정	
4. 인터뷰 사전 준비	
II . 본론	6
1. 이론적 배경	
2. 국내사전조사	
1) 갈매고등학교	
2) 동북고등학교	
3. 해외탐사	
1) Kungsholmens gymnasium (쿱스홀멘고등학교)	
2) Stockholm University (스톡홀름대학교)	
3) Jyväskylä University (유바스쿨라대학교)	
4) 화상 인터뷰 -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4. 종합	
III . 결론	43
IV . 참고문헌	48

I. 서론

1. 탐사배경

교육부(2021)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일정 및 방향을 포함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므로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신입생부터 적용) 후,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교학점제의 선행연구와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비판적으로 살핀 후 더 나은 방향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는 교육과정 편제·교육과정 운영·교육평가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므로 고교학점제에서 교사 전문성의 중요성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정책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한 만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른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로 인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을 강조해왔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사와 강사 확보에서의 어려움, 행정 업무 증가 등을 답했으며 특히 평소 가르치지 않던 과목의 수업 준비에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주연(2021)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수업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사 역량 강화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함께 언급되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제인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그리고 이 평가의 결과가 대학 입시에 그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가에서의 교사 전문성 제고 또한 필요하다. 주주자(2018)의 고교학점제 연구 보고서에서도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성취평가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현 상황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흥미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해나갈 본 팀은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 이전에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탐사주제 및 목표

1) 탐사주제

: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한국 교원양성과정에 주는 시사점(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탐사목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내 연구를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의 논문은 학교 입장에서의 ‘학교 자율성 보장’, ‘지역 사회 연계’, 교사 입장에서 ‘수업 및 평가의 고유 권한 인정’, ‘절대 평가’, 학생 입장에서 ‘심화 및 보충교육’, ‘종합(졸업)시험’을 제안할 점으로 제시했다. 교사의 경우 교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초점으로 하기보다는 ‘교사의 학생 평가 결과 산출 방식’을 중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해외의 사례,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고교학점제 특징에 관한 연구를 보았을 때도 교사의 전문성보다는 학교·학생·지역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교사 측면은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한국 고교학점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교원양성과정은 발맞춰 변화하지 못한다는 판단과 함께 예비교사의 교원양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차별화된 해외 학교 교육 및 교원양성과정과 교사의 전문성 및 노력을 직접 탐사해보고,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제로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탐사일정

본 팀은 유럽의 2개국(핀란드, 스웨덴)을 탐방하였다. 일정은 2023년 1월 12일에 시작하여 1월 23일에 종료되었으며, 2월 2일에 Zoom을 통한 화상 인터뷰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지역	장소	현지 시간	한국 시간	활동내용
제1일 2023. 01.12.(목)	인천	인천 국제공항	16:05	23:05	인천에서 헬싱키로 출국
제2일 2023. 01.13.(금)	헬싱키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06:05	13:05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도착
		헬싱키대학교	11:00	18:00	헬싱키대학교 사범대학 탐사
제3일 2023. 01.14.(토)	헬싱키	헬싱키 중앙도서관	10:00	17:00	서적 탐색을 통한 교육적 맥락 파악
제4일 2023. 01.15.(일)	헬싱키	카페	15:00	22:00	인터뷰 방향 및 질문지 정리
제5일 2023. 01.16.(월)	이위베 스켈레	유바스쿨라 대학교	14:00	21:00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유바스쿨라대학교 사범대학 탐사 및 교환 학생 인터뷰

제6일 2023. 01.17.(화)	헬싱키	카페	13:00	20:00	핀란드 탐사(인터뷰) 내용 정리
제7일 2023. 01.18.(수)	헬싱키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09:50	16:50	헬싱키>스톡홀름
	스톡홀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	10:10	18:10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 도착
제8일 2023. 01.19.(목)	스톡홀름	카페	14:30	22:30	인터뷰 방향 및 질문지 정리
제9일 2023. 01.20.(금)	스톡홀름	쿱스홀멘 고등학교	08:00	16:30	[기관 방문 및 인터뷰] 고등학교 수업 참관 및 선생님(교장, 언어, 역사) 인터뷰
제10일 2023. 01.21.(토)	스톡홀름	스톡홀름 대학교	11:00	19:00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스톡홀름대학교 사범대학 탐사 및 방문 학생 인터뷰
제11일 2023. 01.22.(일)	스톡홀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	13:15	21:15	스톡홀름>헬싱키>인천
제12일 2023. 01.23.(월)	인천	인천 국제공항	04:15	12:15	인천 도착
추가 일정 2023 02.01.(수)	-	-	09:00	16:00	[화상 인터뷰]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인터뷰

4. 인터뷰 사전 준비

본 팀은 한국에서 미리 학교 및 활동 소개를 하였고, 출국 전 인터뷰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사전에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또한 본 팀의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수막과 인터뷰 기관에 전달할 답례품을 준비하였다.

답례품은 인터뷰 기관 및 대상마다 다르게 준비하였다. 사전 답사를 진행한 한국 고등학교 선생님들께는 다과 및 비타민 음료를 드렸으며, 현지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에게는 한국 음식을 전달하였다. 스웨덴 고등학교 선생님들께는 한복 디자인의 비누와 약과, 그리고 차를 드렸으며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분께는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준비, 현수막과 답례품의 예시 사진이다.

Ewha Teachers in Europe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도경 이하은 최유리 홍정민

[사진 1] 현수막 예시 사진



[사진 2] 답례품 예시 사진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한국의 교원양성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은 중등교사의 양성이 사범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의 교직 이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정해진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데에는 다른 학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공 시험,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통해 교사 선발이 이루어진다. 핀란드의 교사 선발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데, 첫 번째 단계는 입학자격시험, 고등학교 졸업장, 학교성취도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아 선발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논술, 개인 또는 단체 면접, 수업 시연, 기타 집단 활동 관찰 등을 포함하여 최종 선발한다.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헬싱키대학을 예로 들면, 교육대학(Faculty of Education)은 총 11개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로, 교사교육학과와 교육학과가 이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교사교육학과(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는 교원양성을 실제 책임지는 주관 기관으로, 초등·중등·기술·가정·유아·특수 교사를 양성하는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는 교육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과로서 교육철학·교육사회학·교육심리학 등 교육학의 세부 영역들을 다룬다. 또한 교육개혁을 통해 모든 교사가 교육학이나 전공과목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는 등 교원양성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교사 연구자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기반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한다. 그들은 연구자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혹은 동료 연구자와 함께 협동하여 연구 수행을 배우고, 교육의 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의 기간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 교육은 학생, 즉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론인 만큼 교육 현장과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4학년 과정에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에 할당된 시간은 4주에 그친다.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근거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이 수업 활동, 학생 지도 및 상담, 교사의 주된 업무 등을 제대로 경험하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한다. 이는 6개월~1년에 걸쳐 20학점으로 이루어진 핀란드의 교육실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교육은 핀란드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같은 북유럽 국가이지만 핀란드의 교육 방식과는 대비된다. 스웨덴에서 교사는 간호사, 의사, 기술 노동자, 건설 엔지니어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족 직군 중 하나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스웨덴의 교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 교사의 급여는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높지 않으며 교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높지 않다. 2013년 OECD에서 실시한 교육 및 학습 설문 조사(TALIS)에서 스웨덴 교사들의 5%만이 '가르치는 일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스웨덴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얼마만큼의 자긍심을 가졌는지 보여준다(같은 설문에서 핀란드 교사들은 60%가 가르치는 일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답변했다). 스웨덴이 핀란드와 같이 교육복지 우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교사가 가진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교사에 대한 낮은 진로 희망으로 인해 교사의 자격요건이 낮아진다면 교육의 질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핀란드가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이룬 배경에는 교사를 전문직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에 걸맞은 급여, 교사 스스로 느끼는 교육에 대한 자부심, 교사가 교육에서 보여주는 전문성과 책임 의식 등이 작용한다.

따라서 본 팀은 해외 탐사를 통해 각 나라의 교원양성과정과 교사의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한국과 비교 분석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수사례로 뽑히는 핀란드에 집중하여 한국 예비교사의 임용고시 선발을 위한 학문 위주의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그들이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교원양성과정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외 교직에 있는 교사들은 학점제를 시행하는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

2. 국내사전조사

1) 갈매고등학교

(1) 기관 소개

유형	공립고등학교
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75
전화번호	031-524-6000
설립연도	2017년 03월 01일
학생 수	629명 (남 381명, 여 248명)
교원 수	61명 (남 14명, 여 47명)

2018학년도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갈매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선택 영역을 따로 만들고 그

외에 탐구 영역 선택, 교과 간 융합 선택 영역을 만들어 선택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전공 영역을 먼저 선택한 후 그에 따라 관련 있는 탐구 영역을 선택하여 전공을 확장하거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합 선택이 이루어진다. 교사 차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예로 교사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교사의 부서별, 연령대별 의견 수렴과정과 교사·학생·학부모 대토론회, 교사 그룹별 원탁 토의, 업무 재구조화 방안 아이디어 수합 및 자유 발제를 통해 교육 주체의 의견을 모은다. 그리고 기획 회의를 통해 ‘갈매고등학교 조직 편성’을 완성하였다. 나아가 멘토 담임제 운영, 교육과정 매니저 과정(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및 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갈매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수업의 양질을 위해 교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있어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탐색하는 본 팀의 연구 주제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탐사를 진행하였다.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갈매고등학교
인터뷰 일시	2022년 11월 11일 (금) 15:00~16:20
인터뷰 대상	학생 1명 (2학년 재학생, 여성), 신규교사 1명 (1년차 국어 교사, 여성), 경력교사 1명 (정보 교사, 여성)

갈매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정리된 책자를 통해 안내한 후 과목을 선택 및 개설한다. 과목 개설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갈매고등학교의 경우 10명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하고 있다. 다만 10명이 되지 않아도 학생들의 진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협의회를 거쳐 개설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간표를 편성하는 건 업무가 상대적으로 없는 방학을 주로 활용한다. 학생들의 과목 수요에 맞춰 필요한 교사의 수를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 수요 조사를 1학기에 진행하고, 2학기에 수강 변경 기간을 진행하여 확정 짓고 있다.

학업 설계 과정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2·3학년 단계에 맞춰 꿈 수업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한다. 학생 평가는 다른 일반 학교와 똑같이 운영한다. 학생 프로젝트 활동도 수업을 통해 평가받는다. 고교학점제의 특징인 이수·미이수 제도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시범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국가 제도적으로 미이수에 대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 교육과정으로는 학생이 강연자가 되어 주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꿈드림 아카데미가 있다. 더 심화된 꿈드림 학회는 교사가 직접 개입하여 학생과 토론하면서 운영된다.

■ 학생 인터뷰

Q1. 고교학점제 경험을 통해 느낀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는 진로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성화된 과목에

있어서 그런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만나니까 진로를 기르고 싶어 하는 학생으로서 는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이 어 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는 없나요?)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진로 상담을 해주는 교사가 계신가요?)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는 보 통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좀 더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을... (질문: 그럼 진로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년별로 다 다른 활동 책이 나와요. 1학년 때 는 진로를 찾는 활동이 진행된다면 2학년 때는 그 진로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 드는 그런 수업을 하고, 3학년 때도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좀 더 심화시켜서 단계별로 진로 연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질문: 학교에 멘토 담임제라는 게 있던데,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멘토 담임제는 2학년에서만 이 루어지고, 원래는 한 반에 30명이나 20명 후반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10명 초반 10명 중반 이 정도예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담임선생님도 더 신경을 잘 써 주실 수 있고 저희도 부담 없이 뭔가 말할 수 있는...
Q2. 지금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쉬운 게 있을까요? 개 선되었으면 하는 거요.
저희가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가 1학기, 만약에 3학년 때 수강할 학점제 과목을 선택 한다고 하면 2학년 1학기 후반 그 정도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시기 가 이른 감이 있어서 선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시기가 조금 늦춰지면 제가 심경에 변화가 있을 때도 더 잘 맞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그럼 과목을 선택하면 그 이후로는 변경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변경 기간이 있긴 한데 그것도 2, 3주 정도예요. (질문: 이동 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사물함 이용 같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요.) 2학년 처음 시작 하고는 저도 교과서를 계속 사물함에 들려서 가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긴 했는데 점 점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친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사 물함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 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Q3.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셨나요?
저는 공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 공학 일반과 과학 과제 연구 같은 걸 들었어요. 저는 수강하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 보면 연극이나 텃밭 가꾸기 같이 독특하고 특색 있는 과목도 있어요. (질문: 그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과목이 개설된 것인가요?) 처 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학생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과목을 개설할 만큼 충분한 인원이 생기면 폐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 시간표 같은 건 학생이 정하나요?) 시간표는 일단 저희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저희가 받는데... 저희가 과목은 선택하지만 시간표는 안정해요. (질문: 과목을 선택 할 때 고려하는 1순위가 진로인 거예요?) 보통 진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그럼 두 번째 로 고려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냥 진로만 보고 선택하는 거 같아요.
Q4. 신설된 과목은 기존의 공통 과목(국·영·수 등)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공학으로 따지자면, 정보라는 과목은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많이 개설되는 과목이잖아요. 정 보는 공대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론이라면, 우리 학교에 있는 공학 일반은 그걸 바탕으로 실습하는 그런 과목이고, 실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1년이나 한 학기

단위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 연계나 외부 활동 같은 건가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대회나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공학 일반 시간에 제 프로젝트로 끌고 와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그럼 그런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제가 했던 1년 프로젝트는 얼마 전에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그러면서 평가를 진행했어요. (질문: 절대평가인가요?) 네. (질문: 고교학점제 사례를 찾아보면 신설되는 수업들에서 영상을 보거나 교과서를 읽는 등 부정적인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고교학점제가 진로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나요?) 영상을 보거나 이론적인 걸 읽는 수업은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 그런 과목들은 교과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자료를 가져오시거나 신청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교육 책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Q5. 지금 다른 일반 학교와는 커리큘럼이 다른 상태잖아요. 입시 준비하는 경우에는 차별점이 없나요? 차별점이라기보다는 특성 같은 걸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학교에서 필수로 수강하는 그런 과목들은 우리 학교에서 과목 선택할 때도 선생님들이 ‘이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이니까 같이 수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질문: 주변 학생들을 봤을 때, 입시에 대한 영향은 잘 안 받나요? 성적을 좀 더 잘 받는다거나 수업이 수월하다는 등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있긴 한데 대학 과마다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맞춰서 선택하고 만약에 인원수가 적은 과목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부담이 되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교사 인터뷰

Q1. 고교학점제를 운영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수학 안 되는 애들이 수학 붙잡고, 미술은 그림 그릴 거고 막 이런데...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 외에 심화된 수학의 내용까지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거의 고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질문: 학생들의 참여가 확실히 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자기주도활동 같은 거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것도 거의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학생 인터뷰 때 새로 개설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교사분들께서 다른 자료를 추가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없는 교과가 있어요. 교과서가 없는 교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교과서가 있고요. 교과서가 없는 교과는 탐구 실험 과목, 과제 연구 과목,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교과서가 다 있어요. (질문: 그러면 수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교사 임의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교과서가 있어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 교과 재구조화라고 해서 교과 내용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교과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시죠.
Q2.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이 필수

가 아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교사 수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사... 어렵죠. 어려운 게 이제 기본 교과는 기초 교과예요. 국·영·수·사·과 이런 거. 사·과도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사회가 아니라 지리·일반 사회·역사. 역사 또 따로예요. 과학도 화학·생물·지구과학·생명과학 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씩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 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 이런 분들은 거의 각 학교에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업하려면 시수가 너무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역 순회 교사를 뒤편에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스페인어랑 연극 선생님이 지역 순회로 학교를 3개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중략) 교사 티오는 있는데 수업이 없어요. 수업 시수가 너무 적어요. 그럴 때마다 티오를 감소시킬 거냐...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있으면 티오 증가했다가 없으면 티오 감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사실 요즘 애들이 제2외국어 선택을 잘 안 해요.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벽이 없어요. 제2외국어에서 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교과 영역에서 융합한 영역에서 하나, 이런 영역에서 몇 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선택 안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질문: 그러면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지역 순회 교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선생님들 기본 시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수를 기본 교양 교과에서 가져가서 같이 운영하시죠. 교육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쨌든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거니까 시수 적으신 분이 교육학을 가져가서 수업하시고, 다른 것들도... 아니면 저희 연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논술학, 종교학... 그런 것들이 다 연수가 있어요. 계속 그런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양 교과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중략) 새로 개설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기준이란 게 나와요. 교양 과목에도 다 있어요. (질문: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강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사 교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 순회 교사는 교사고요. 외부 강사는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할 때,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외부 업체를 통해 강사 고용해서 시간 단위로 하는 연계 프로그램들인 거고요. 저희가 특별한 게 텃밭 가꾸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텃밭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농업 설계사나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매주 매시간 오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어떤 내용을 안내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하고 다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Q3. 고교학점제의 특수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교과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정착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교사에게 그런 교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충분히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업무하느라고 교과 연구를 더 소홀히 할 때가 있고 교과 연구는 연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연수들이 토요일 아니면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방학 때... 그런 때에 교과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수업을 앞두고 만약 더 하고 싶어도 이게 업무랑 겹치다 보면 사실 힘이 빠지죠. 그런 건. (질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연수 듣고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연수, 교과 연구회. 교과마다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끼리 강사가 되셔서 오히려 이제 선배 교사들한테 새로 바뀌는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수업이 이렇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수업했던 사례를 나누기도 하고...
Q4.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업을 들으면 갈매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성공 사례로 많

이 나와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영혼. 시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밑단에...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네?’, ‘준비를 하라네’ 이러니까... 안 하던 거에 이렇게 판을 깔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중략)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업무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전체적인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애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조금 더 오류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중략) 그다음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해주고 학생들이 준비를 해요. 1학기 때 창체 시간에 학생들이 선택해가지고 수강을 했어요. 강연자가 학생이고 수강자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나는 이 전공 쪽에서 이 진로 분야에 이미 관심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Q5. 교사와의 협력 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사람도 많았죠. 이제 시작하는 학교는 저희가 처음에 겪었던 그런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조율 과정... (중략) 저희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하는 거라는 게 자리를 잡은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고민은 조금 더 그 내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최소 성취 기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정말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교과마저도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완성은 아니에요. 저희도 완성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를 더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좀 민망해요. (질문: 이런 의견 조율 과정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이런 거 있는데 어떠세요’라고 메신저를 많이 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소규모의 모임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부서별 협의 시간도 있고, 전체 회의 시간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공강이 없어서 전체 협의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공강이 있으면 퇴근 이후에 또 선생님들이 남아서 연구하고... 물론 하죠. 물론 하는데 전체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1시간 빠지는 그 시간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협의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요.
Q6.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는 다른 나라를 보면 무학년제를 사용한다든가 담임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아니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멘토 담임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멘토 담임제를 시행한 계기는 학생들이 이동하러 다니다 보니까 적응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해서... (중략) 2학년에 최소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불만도 많아요. 불만도 많은데... 아까 전에 친구(학생 인터뷰 대상)는 선생님하고 더 관계가 가까워져서 좋다... 선생님이 일을 잘해 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불만은 친구가 너무 없다. 또는 사실 이게 멘토 담임제의 불만보다는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이동을 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선택 교과가 다르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에서 학급의 소속감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멘토 담임이고 아니고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멘토 담임제가 정식 명칭이 아니고 분반 담임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파일럿 프로그램 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진로 지도였거든요. 목적은 학생들에 맞는 개별 진로 학업 설계 지도. 근데 소속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담임 행정 학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학년 담임으로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요구를 하면서 이런 진로 학업 설계 분반 담임으로서의... 결론은 학생 멘토 교사죠. 멘토 교사의 역할을 같이 요구를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멘토 교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밖(부모님 등)에서는 멘토 단위보다는 학급 경영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의 내용들은 학급 경영에서 오는 불만들이예요.

Q7. 행정업무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나요?

업무량이 많이 늘었죠. 시험만으로도 얘기를 하면, 굳이 이걸 행정 업무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험 볼 때 보통은 그냥 일괄로 시험 1교시, 2교시 다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1교시 애들이 다 시험 보는 게 아니예요. 애들이 이거는 보고 이거는 안 보고, 겹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과목을 동시에 볼 수도 없어요. 서로 겹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두 과목을 동시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시간표 배치에도 작업이 훨씬 오래 걸리고, 시험 보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도 원래 프로그램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수작업으로 다 학습 시간표 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안 된 시간만 잘 배치하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 바닥에 까는 것부터 하니까 한 달 이상 걸리게 되죠. **(질문: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조직 문화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무엇이 변화하면 도움이 될까요?)** 정확한 행정 업무가 분리된다면... 교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문 작성이라든가... 물론 학습 관련한 자료들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라든가 (물론 행정실에서 해요) 학급 교실 내의 관리라든가 학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거. 우리 학교는 그래도 학생 지원비 그런 걸 행정실에서 하긴 하는데 아직 교사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학생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교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중략) 요즘 스마트 기기가 많아졌잖아요. 이 스마트 기기 관리를 다 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한 500대가 되는데, 이 500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선생님들의 몫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일괄로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럼 그 선생님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대여해도 되게 힘든 거예요. 분실하면 어떻게 하지, 수리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학년부로 간데도 많고. 학년부로 가면 담임선생님들 몫이잖아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또 기기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분리될 수 있는 행정 업무만 있어도,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교사라는 건 결국에 꾸준한 양성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가르쳐주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혼자서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이랑 '이런 거 이렇게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어때요?' 하는 것도 재밌어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니면 이제 전 지나온 세대고 어쨌든 거쳐 갈 세대고 새로운 세대가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같이... 이런 경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업무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면 좋겠다는 거죠.

Q8. (신규교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예비교사 교원양성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변화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복수전공을 필수화한다든가 혹은 어떠한 역량이나 자질이 필요한지 애초에 이 부분은 교원양성과정에서 함양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국어 교과여서 다른 교과를 같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했지만, 저는 사실 복수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복수전공을 했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내 복수전공을 갑자기 가르쳐 보라고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복수전공을 했더라도 이걸로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자신 있게 애들한테 잘 안다고 가르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예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단 복수전공으로 해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질문: 실제 교육 현장에 진짜 필요한데 사범대에서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행정업무요.) 사실 행정 업무 같은 거를 대학교에서 배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당황스러웠지만 옆에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셨고...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기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수업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상담하는 법 이런 것도 애들한테 처음에 다가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무슨 상담을 해줘야 되고... 갑자기 막 '너의 진로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한데... 처음에 애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질문: 그러면 교육 실습도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기간은 보통 한 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거 같나요?) 저는 딱 좋을 때 즐기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랑 약간 트러블이 생길 때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서 즐거운 모습만 보고 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달이면 약간 친해지고 재미있어질 때쯤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근데 짧은 하죠. 수업도 저는 한 10번 이렇게 정도밖에 안한 것 같아요. (질문: 사범대에서 교직 과목은 보통 20학점 정도인데, 실제 교사 생활에 적용하기에 그 수업 시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배운 것과 실제로 또 하는 거는 너무 다르고... 평가는 배운 걸 써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과목인 교육철학, 교육사 이런 거는 사실 배우면서도 까먹었고... 상담도 애들한테 제대로 써먹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Q9. (신규교사) 아직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니까 대학교에서는 교육(고교학점제 관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첫 학교를 고교학점제 시행 학교로 오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처음에는 고교학점제가 뭔지도 몰랐고 이해도 안 됐고... 반이 나뉘지는 것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몰랐는데, 애들이 대학교처럼 수강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죠. 아무 정보도 없고 대학교 때는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선택권이 많아지고 진로에 볼 게 많아지고 이런 장점들만 배웠다면 여기 와서는 실제로 애들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데는 이런 게 힘들고, 단점도 많이 보이고... (질문: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애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제가 좀 많이... 그 학생이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담임 이어도 애가 지금 수업에 들어간 건지 어디에 있는지 그게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맨날 쉬는 시간에 전화하고, '지금 학교 왔니' 이렇게. (경력교사) 이게 학교 특성이예요. (중략) 담임선생님 만날 시간이 조회, 종례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회를 보러 오지 않고 왔다가 수업 하나 듣고 가요. 그런 아이들이 힘든 거죠.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죠. 졸업은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수업 일수로 진급하니까 한 시간 들었으면 출석은 했잖아요. 그 하루의 수업 일수는 채워지죠. 그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고민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아이들에게 사실 공강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작업(시간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공강을 마지막 시간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공강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니까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공강 지도가 사실 힘들기도 한 게 선생님들이 연강 수업이 많아요. 1,2,3,4교시를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고 나와서 남은 시간에 업무나 이런 걸 하기 힘들거든요. 그 4시간을 만든 사람이나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공강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또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선생님들 한 75%는 공강 없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짜여지는 거니까 다를 수는 있죠. 그런 학생들의 특성 때문에 이제 담임선생님들 입장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Q10.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 주제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사범대 학생들의 교원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일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직도 철학이나 이런 거를 예전처럼 그냥 책을 읽나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교육학에 별 관심이 없어서 이론이나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요. 실무 쪽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학생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상담이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하셨는데, 상담의 기본은 필요해요. 라포 형성같이 이런 기본들은 필요한데 그런 건 학생들을 다양하게 만나봐야만 경험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양성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현장에 바로 나왔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교생 실습 한 달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그런 양성 과정이 있을까요. 회사 인턴처럼 교사 인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 인턴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인턴이 있거든요.)** 글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악용한다면 비서처럼 쓰실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험을 쌓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렵게 시험을 먼저 보는 것보다 기간제 선생님처럼... 기간제 선생님을 먼저 하시는 경우에 하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 국가 차원에서 변화가 생겨서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오고 그 기간이 연장되면 기존 교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업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규교사) 다양한 애들을 자주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간제 경험이 하나도 없고 공부를 해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상 17, 18살짜리 애들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비해 담임교사의 역할보다 교과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들이 다 담임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제 교과를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 동북고등학교

(1) 기관 소개

유형	사립고등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305
전화번호	02-477-2280
설립연도	1953년 06월 04일
학생 수	1010명 (남 1010명, 여 0명)
교원 수	91명 (남 55명, 여 36명)

갈매고등학교의 사전 탐사를 마친 상태에서 다른 특징을 가진 학교를 탐사하기 위해 선정한 학교로, 동북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에 교사의 이동이 없다는 점,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 남자 학생들만 재학하고 있다는 점, 서울에서 거의 가장 큰 학교라는 점 등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에 있어 갈매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을 기대하였다. 동북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설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고교학점제 관련 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관련 학부모 연수를 진행한다. 또한 진로 체험 주간이 존재하며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투썸플레이스 올림픽공원역점
인터뷰 일시	2022년 12월 01일 (금) 15:00~16:20
인터뷰 대상	교사 1명(7년차 영어 교사, 남성)

동북고등학교는 서울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의 학교로 한 학년에 13개의 반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개설된 상태이고 추가로 전문 교과라 불리는 외국어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수업과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학 과제 연구 수업도 개설하였다. 과목 선정은 보통 당해 연도의 전년도에 교육과정위원회라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위원회는 한 학기에 1~2회 정도 한다. 과목 개설은 학생들의 수요 조사가 아닌 교사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진행되며, 교육과정위원회에 학년별 학부모 회장·부회장이 6~9분 정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강 신청은 보통 10월에 하고 11월, 12월에 과목 정리, 1월, 2월에 다음 학기 준비를 한 뒤에 개학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5월부터 9월까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과목 선택이 되면 학생들이 예비 수강 신청을 1회 한 다음 10월에 수강 신청을 한다. 이때 1학년부터 3학년이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11월부터 2월까지 반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돌려 시간표를 편성하고, 교사 수급 등을 조사한다. 동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 인원이 적더라도 폐강 없이 개설되고 있다.

학생 평가의 경우,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로 과목만 절대평가이다. 따라서 아직 이수·미이수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시범 차원에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한 교사는 공부방처럼 성적이 좋지 않지만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외 시간에 따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은 기존 수업과 다르게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한다.

진로 지도의 경우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통해 진행한다. 학생들과 따로 남아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수업 시간에는 본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희망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안내한다. 1학년은 '진로와 직업' 수업과 창의적 체험 진로를 통해 주 2시간 진로 지도를 하고 2~3학년은 창의적 체험 진로를 통해 주 1시간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교사 인터뷰

Q1. 고교학점제가 없었을 때와 시행된 이후를 둘 다 경험해보셨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긍정/부정적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점은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려고 하고, 자기 진로나 가고 싶은 학과가 방향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적합하고 괜찮은 제도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기초 소양 교육을 일제히 하고 대학 가서 배워도 늦지 않는데, 굳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까지 진로에 몰입해야 하나... 사실 저는 부정적인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 교사를 하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던 시기가 대학생 때였고요.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그때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늦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점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진로 결정 시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유튜브 보면 30살, 40살에 다시 수능 봐서 의대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진로에 따라 과목을 결정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너 빨리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라고 강요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질문: 교사의 역량이나 업무 차원에서는 어떤 차이가 가장 크신 것 같나요?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학생 상담 역량이 너무나 중요해지고요. 지금 어머님들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고 알림장 써주고... 그거를 겪었던 1세대 분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올수록 기관에서 아이를 챙겨주는 부분들이 점점 열리지않아요. 근데 그걸 아직 해주기를 바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역량이라든지 아이 생활 지도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슬픈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가요. 애들이 과목 선택할 때도 '내년에 생활과 윤리 선생님 누구예요', '그 선생님은 선택 안 할래요.' 물어봐요. 그다음에 행정업무, 원래도 많잖아요.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저 선생님은 바쁜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일 없는 선생님,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딱 n분의 1 업무라는 게, 물론 n분의 1 하기 쉽지 않겠지만, 몰리는 선생님한테 몰리고, 아닌 선생님한테는 안 몰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출장도 계속 다니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우세요. 저는 교대원 나왔거든요. 교대원까지 나와서 학교에 임용돼서 왔는데, 막상 하는 건 행정 업무하고 있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러니까 교과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제 업무 시간 중에 제일 적어요. 담임 업무하고 계속 공지사항 올리는 학부모 밴드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편해요. 학부모한테 제 연락처 안 알려줬어요. 상담 능력이나 그런 학생 케어 능력 같은 건 교대원이나 사범대학에 따로 가르침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교육 실습 이거 읽었을 때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4주는 약간 이벤트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그냥 애들이랑 놀다 오는 거거든요.

Q2. 교원 수급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교원 이동이 없거든요. 이제 교원 수급을 조정하는 건 점점 인

구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로 뽑을 사람을 선정하기보다는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만약에 이 선생님이 나가면 그 나간 선생님의 과목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줄여나가는 게 더 우선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업무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교사 수를 절감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되지는 않을까요?)** 맞아요. 공감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부담되죠. 옛날에는 그냥 교실에 애들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바뀌어 가면서 수업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동성이 많다 보니까,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당 담당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라든지 이제 출제라든지, 아이들 관리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단순히 교사 한 명당 학생 몇 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한 명당 몇 과목을 맡는지, 그래서 담당 학생 수라는 외적인 요소들을 더 버무려서 교원 수급 계산법을 다시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2025년부터는. **(질문: 과목을 여러 개 맡더라도 예를 들어 영어 교사 하면서 수학 과목을 맡고 그러진 않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 2, 3학년 영어를 다 하는 거죠.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권 문화, 3학년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과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니까...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거는 시험 문제 출제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부담이 선생님들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출제한 걸 가지고 아이의 진학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냥 내는 선생님 거의 아파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질문: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너무 많이 신청했는데 교원이 부족한 문제는 없었나요?)** 오히려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 뽑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자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한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애들이 한문 선택을 안 해서 그 선생님 시수가 16시간을 해야 되는데 6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10시간을 더 줘야 되긴 하는데 어떤 과목을 수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그 선생님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있는데 애들이 선택을 안 할 때. 특히 사립학교가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공립은 없으면 그 시수가 있는 학교로 가면 되거든요. 물론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라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사립은 그게 없어서 저희는 그게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 외부 강사분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있으세요. 임용 통과 여부는 상관없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Q3. 해외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학교들을 보면 담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진행되어도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진로 상담은 어떻게 제공하고, 학생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담임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교사들은 학점제 하면 담임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담임제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학부모들 때문에. ‘우리 애가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해외 사례, 저도 교육부에서 보내줘서 독일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다른 점이 뭐냐면 해외는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이나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도 진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

고 있어요. 그리고 과목을 듣는 취지가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건데,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의도는 자꾸 진로랑 과목 선택을 엮는 거죠. 그리고 진학 전형까지 연계시키니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어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진로 전공 적합성에만 너무 몰입해서 진학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게 차이점이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에도 해외는 우리처럼 생1, 생2, 물1, 물2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학 그냥 피직스, 히스토리 이렇게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에서는 조금 변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담임선생님 그걸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흐름이 어떠냐면 과거에는 고3 담임선생님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고1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 2학년에 공부해서 3학년의 진로 진학 지도를 하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1학년 담임이 진로 진학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생기부 방향성을 잡아주고 2학년에 공부시킨 다음에 3학년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를 쓰지 않으면 애들이 학교에 아예 안 와요. 최소한으로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 때 생활지도를 제일 세게 해야 해요.

Q4.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맞춤형으로 진로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옳을까요?

지금은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 전달체로서의 학교 역할은 많이 퇴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글링만 하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 전달체의 역할보다는 핑거 프린세스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도 학습. 누가 찾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궁금한 거를 찾아보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좀 기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회성이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선생님들이 정당한 지시를 해도 선생님이 말한 거는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원격 수업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대면에서 대화하는 기회가 많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목 선택하는 거 기한이 지나서 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학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학교에서 바꿔주겠다' 하고 써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못 쓰죠. 제가 A4 한 페이지 포인트 10으로 꼭 채우라고 했거든요. 쓰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 이거 과목 바꿀 때 학업계획서 이렇게 학생한테 쓰라고 하는 거 교육청 지침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게 공감 능력, 사회성이랑 많이 연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 생활지도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생활 지도적인 측면이 매우 크고... 이동 수업을 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같은 반 애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친해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대학교화 됐어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옆에 애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반이고 수업 때마다 나 잠깐 만나는 애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 부분이 좀 부족해졌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담임 역할을 할 때 그런 걸 애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Q5. 중간에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더 많죠.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반에 진로가 3년 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아이는 한두 명밖에 없을걸요. 그래도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 간담회를 할

때마다 푸시를 많이 해서 지금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로 바뀔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도 좀 바뀌어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나름 강동 송파에 있다고 해서 진학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대학교별로...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3년 동안 생기부가 진로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거의 합격이 안 되고 어떤 학교는 진로가 바뀌어도 성적이 좋고 생기부가 좋으면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지도를 해줘야지 이해해요. 과거에는 그냥 이상적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써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의 상황과 생기부를 보고 그렇게까지 지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질문: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업하는 데 필요한 자격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어요.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진로 직업은 다 수업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누가 수업할 수 있겠느냐’라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판단하셨을 때, 저 보고 ‘네가 해라’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담임인데 저희 반만 영어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2시간,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은 다 진로 수업하고 있어요.
Q6. 교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일단은 학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논문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대학교 발표 자료, 그리고 대학교 공동 연구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고하고, 그다음에 교과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 교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보여주기식이 많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이고 진부한 얘기만... 결론은 그냥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교사들이 잘해라, 너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많이 나서 그런 게 아쉬워요.
Q7. 교원양성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육 현장에 왔을 때 가장 큰 괴리를 느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 이거 안 배웠는데 필요하네’ 이런 거요. 아무래도 교과적인 측면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양성과정에서 영어교육학의 중심은 ESL이라고 하잖아요.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한다고 저는 양성기관에서 배우고 왔는데, 학교에 딱 왔는데 바로 EBS 주면서 수업하라고 하는 거. 제가 2004년에 고1이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영어 수업이나 어떤 패턴이. 똑같이 문법 수업하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어 교육학에서 배울 때는 아웃풋(발화)을 잘해야지 세컨 랭귀지로서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적인 측면에서의 괴리가 너무 힘들었고 부담이 또 많이 됐고 지금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회화 능력이나 역량이 대학생 때랑 비교하면 지금 현저히 떨어졌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행정업무 많은 거 가지고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교류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는데 왜 공문서를 처리하고 있지’ 약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Q8. 상담 능력이나 학생과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수업이나 전문성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원양성과정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 멘토링을 해서 확대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인 게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하고 있고, 약간 누가 하면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

범대 학생들한테 교육과정으로 공지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가 붙어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교직에 투입됐을 때의 상담 역량 같은 게 약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걸 한 번도 안 해봐도 와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와서 군대에서 다 해봤어요. 제가 한 7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자살 안 하게 상담도 하고... 군대에서 2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또 남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적응 기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 경우를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개인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질문: 교생 실습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셨나요?)** 일단 참관을 제일 많이 했고요. 상담은 어떻게 했냐면, 제 사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생 쌤이랑 상담할 사람 신청하라고 해서 했어요. 제가 갔던 학교가 공학 문과반이었는데 30명 중에 남자가 5명, 여자가 25명이었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계속 상담해달라고 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지', 물론 아이들이 교생 선생님한테 진로, 진학 상담을 기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Q9. 고교학점제는 개설되는 과목의 범위 폭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들 모두 복수전공 혹은 다전공을 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부담감을... 그게 교사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격증 있으니까 너 수업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만약에 수업만 하고 딴 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담임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수업도 다교과를 하라...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행정 업무를 좀 덜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행정 공무원을 더 늘려서 행정업무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교과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아서 과목 분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을 많이 뽑아서 상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하라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질문: 그럼 다른 측면에서, 이 과목은 수요가 적고 저 과목은 수요가 많아서 니즈가 안 맞는 경우에, 이 과목까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좋죠. 저는 제가 우리 학교 교원 수급을 다 계산하거든요. '2023년도에는 무슨 과목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다 계산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까 한문 얘기했잖아요. 한문 선생님이 자격증이 2개예요. 한문이랑 국어. 근데 아까 제가 10시간이 땀구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나 한 3년 뒤에는 그 선생님이 국어를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죠. (중략) 근데 제가 교원 수급을 하다 보면, 교원 수급의 문제점을 꼬리 물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딱 막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사범대를 왜 교과교육학과로 나눠놨을까. 교육학과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타 전공을 복전해서 그 과목 교원 자격증을 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 과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스무 살 때 이 사람의 진로가 확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통합 사회랑 통합 과학이었어요.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옛날에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고 불렀던 거를 통합사회, 통합과학교육과를 만든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요. 그런 식으로 과목이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양성기관에서는 몇십 년 전 거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Q10. 교사가 해야 할 업무량도 많아지고 교과 전문성도 요구되잖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이나 내용을 다른 동료 교사와 공유하는 문화가 도움이 될 것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동북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수 학습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있나요?
사립학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인 물이죠. ‘이거 귀찮은데 왜 해’ 이거죠. 공립 선생님들은 그걸 하면 아마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립은 전혀 안 해요. 일단은 관리자를 거의 나이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나는 학교에서 관리자가 되거나 부장 교사가 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학생들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 편을 많이 들어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교류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수업은 불편해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편해지려면 누군가가 나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견제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원을 가기 때문에. 근데 동료 교사나 학부모가 내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을 정확히 줄 수 있고 이러면, 저는 수업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분위기는 못 한다. 그리고 교육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업은 토론을 많이 해야지 공교육인데’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내가 수업을 해서 애들 수능 잘 치게 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그런 교육 철학적인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니즈는 후자에 가깝죠. ‘이거 해서 뭐가 도움이 되나요’라고 애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흔히 ‘그 선생님 수업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류 효과라고 하잖아요. 평가가 교수 방법까지 영향을 끼치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고 선생님들 교수 방법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도 같이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해외탐사

1) Kungsholmens gymnasium (쿱스홀멘고등학교)

(1)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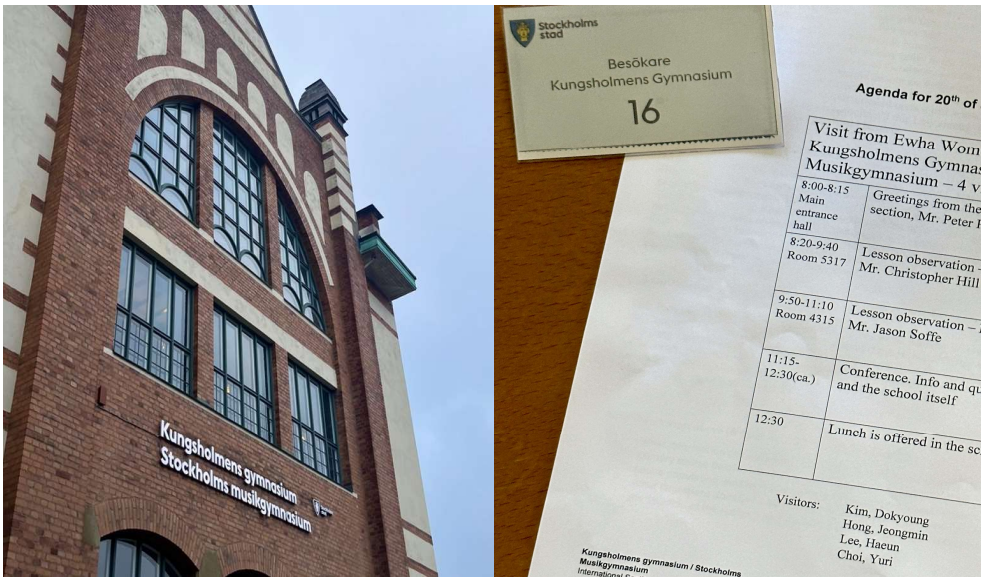
유형	Upper secondary school 공립고등학교
주소	Hantverkargatan 67-69 112 31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508-38-000
설립연도	1902년
학생 수	1300명
직원 수	100명 (교사 75명)

본 학교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중학교까지의 성적이 총점 320점 중 310-315점을 받는 우수한 학생들과 외국인이 진학한다. 학부별로 교장을 두고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교엔 스웨덴학부·국제학부·음악학부가 있다. 그중 국제학부는 영어로 수업을 하며 사회·과학·언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교사가 막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어 수업 진행 방식이나 수업 자료를 모두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제학부의 국제관계 수업과 역사 수업에 참관하여 교사 자율성과 수업 환경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사진 3] 쿡스홀멘고등학교 현수막 사진



[사진 4] 쿡스홀멘고등학교 외관

[사진 5] 쿡스홀멘고등학교 초청장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Kungsholmens gymnasium
인터뷰 일시	2023년 01월 20일 (금) 11:15~12:30
인터뷰 대상	국제학부 교장 1명 경력교사 2명(영어·독일어 교사, 역사 교사)

일반적인 스웨덴 학생들의 교육 경로에 따르면, 2~3살 때 초기 단계의 보육을 받고 5~6살 때 선택에 따라 1년 동안의 프리스쿨 과정을 가진 후 9년 동안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데, 이때 입학하는 학교는 의무 학교 마지막 학년(9학년) 때 받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학교 간 학생 수에 따라 재정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길 원한

다. 쿡스홀멘고등학교의 경우, 스톡홀름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으며 입학도 또한 높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희망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이며, 학교를 졸업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직종에서 일할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단계인 대학교의 경우, 입학시험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성적만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요소이다. 스웨덴의 교원양성과정은 주로 5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예비교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실습을 진행하며, 두 과목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쿡스홀멘고등학교의 학점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과목의 90%는 학교에서 결정하고 학생들은 그중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학급의 학생들은 최소 15명이 충족되어야 하며 폐강이 될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2지망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1, 2학년 학생들은 스웨덴어, 수학, 영어 등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마지막 해(3학년)에는 사회과학 프로그램과 자연과학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화 과정을 진행한다. 전문화 과정에 해당하는 200학점은 학생들이 여러 세부화된 과목 중에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전공을 희망한다면 경영 전문화 과정에, 자연과학 학생이라면 우주론이나 분자생물학, 해양생태학 전문화 과정에 진입하는 것이다. 과목 개설의 경우, 학년이 시작되는 8월쯤에 학생들의 희망 과목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3명 정도의 학생만 동일 과목을 신청했을 경우, 학교장들 간의 논의 후 그 학생들이 2지망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스웨덴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민주적인 관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진 시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스웨덴 교육법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쿡스홀멘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뇌 과학, 인종, 젠더 등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 연합이 잘 구축되어 있어 학교장과 연합 구성원 학생들이 매달 회의를 통해 캠페인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학교 내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 교사 인터뷰

Q1. 여러분 혹은 스웨덴 교육이 중요시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인가요? (역사교사)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학습과 발전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한, 저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즐기고 제 교실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어·독일어교사) 저도 동의해요. 그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미래의 삶에 유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저 점수를 얻고 시험을 보는 것보다요. (학교장) 학교장의 관점을 더해보자면,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를 지닌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가지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상적인 교사는 교실의 모든 학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 학교 임원들,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질문: 근무 시간 외에도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요?) (영어·독일어교사)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일주일 44시간인 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하지만, 가끔은 그 이상일 때도 있어요. 한국과 스웨덴의 교사 주당 근무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학교장) 스웨덴 교사들의 근무 시간 협약은 두 파트로 나뉘어요. 교사는 꽤 자유로운 직업이기 때문이죠. 교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근무 시간 외의 많은 자유를 가져요.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주당 35.5시간의 업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업무 시간에 교사들은 수업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준비, 시험 채점, 학부모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해 평균적으로 10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언제 어디서 수행할 것인지는 교사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고용주(학교장)와 교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죠. 물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이지만 매년 달라요. 따라서 어떤 주는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20~25시간 동안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주는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시험을 채점할 때는 바쁘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과목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업무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지금 이 학교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35시간 근무에 대한 통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요. 저는 이러한 점이 학교가 교사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Q2. 한국의 교사들은 많은 행정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이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학교장)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많은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이것에 대한 교사들의 항의가 꽤 많았어요. 현재도 물론 일부 행정 업무는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스톡홀름 교사 노조에서는 교사들이 해야 할 행정 업무량이 많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스톡홀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와 역할 등(학부모와의 연락, 서류 정리 등)을 다시 조사했다고 해요.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관리인들에게 행정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15세 미만이라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복지 등에 대해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돼요.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질문: 한국은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담임교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담임제가 스웨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영어·독일어교사) 네. 우리는 그 교사들을 멘토라고 불러요. 실제로 ‘멘토’가 현재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고, 법적으로 모든 학생은 멘토의 지원을 받아야 해요. 보통 한 학급에 33명의 학생이 있는데, 1, 2학년 학급의 경우 한 학급에 두 명의 멘토가 배정됩니다. 3학년 학급의 경우, 한 반에 한 명의 멘토만 배정돼요. 저는 현재 16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제 협력 멘토가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둘 다 반 전체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해야 할 때는 각자가 맡은 학생 16명 정도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Q3. 스웨덴 학교에서는 교사공동체가 잘 실천되고 있나요?

(영어·독일어교사) 네. 우리는 여러 과목 담당 교사공동체가 있고, 다른 학교의 다른 교사들과도 교사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커뮤니티 모두 활성화되어 있고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나요? 어떤 토론을 진행하나요? 수업에 활용하는 문학, 참고자료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질문: 교사의 순환 근무가 학교 간 평등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장) 네. 저는 몇 번 한국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국 교사들이 순회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목표는 명백히 학교 간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엔 그것이 오늘날 스웨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학교 간 불평등이요. 왜냐하면 저희 쿡스홀멘 고등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학 공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다른 학생들과 둘러싸여 매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서로 영감을 줍요. 그리고 이걸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래서 이걸 학교로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데, 다른 학교는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영어·독일어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고 좋은 모든 교사가 하락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옮겨와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을 가진 좋은 학교가 좋은 선생님을 끌어오고, 나쁜 소문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학교들이 좋은 인력을 배치하는 데 큰 문제를 갖죠.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서 일하길 원하지 않으니깐요. (학교장)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스웨덴 사회에서 큰 문제이고, 20년 동안 과속되어 왔어요. 제 아내가 한국인인데요. 그녀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고, 스웨덴에서는 학교들이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경쟁한다고 해요. 학생들의 평등에 있어서는 사실 학교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더 낫죠.

Q4. 중간에 흥미나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커리큘럼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하나요?

(역사교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스웨덴은 선택과 기회의 나라예요. 제 말은, 우리 학생들은 꽤 일반적인 대학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부해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면 대학의 많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교양 과목을 공부한다면 언어에 더 집중하든 덜 하든 할 수 있죠. (학교장) 스웨덴에는 고등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성인 교육 체제가 있어요. 사회과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고 가정해보죠. 부모님 두 분 다 의사가 되는 것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면 성인 교육에 가서 물리학과, 수학, 화학,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역사교사) 3년 전에 졸업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사회과학 프로그램을 공부했지만 2, 3학년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현재 성인 교육 단계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독일어교사)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학생이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이후 성인 교육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학교장) 그리고 직업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 직업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대학 자격을 얻기 원한다면 학교가 별도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 자격을 위해 공부할 필요 없지만, 항상 선택권을 가져요.

(질문: 한국에서는 몇몇 등급이 높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바꾸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학점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한국의 교사는 하나의 진로만을 고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학교장) 제 생각엔 오직 성적으로만 입학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권리가 있고 공학을 공부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수학과 물리학 등을 당연히 공부할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을 거쳐야 하죠. 특히 여기 스톡홀름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이곳의 대학 경쟁률은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적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 생기부, 수상 경력 등을 보지 않고 오직 성적 그 숫자만 보기 때문이죠. 이게 다르네요. (질문: 프로그램에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특별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때에 따라 보충 수업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 과제’와 ‘보충 수업’이 실제로 이수를 받을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질 좋은 과정인가요?) (학교장) 저희는 낙제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학교에는 특별 교육을 담당하는 두 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은 학생들이 공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추가 수

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적은 교사에 의해 정해지며 보이는 지식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맞아요. 저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낮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해당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급 기준이 있어요. 최저 등급인 E 등급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이 성적을 포함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합격점을 줄 수 없어요. E의 성취기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물론 A나 B로 수업을 마친 학생은 E 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공부하는 잘해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교육의 질이 낮다고는 할 수 없어요. 즉,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성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여학생이 팔이 부러져 시험을 치르지 못했어요. 이 학생의 경우 수업 이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전혀 아니며, 불의의 사고였기 때문에 추가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주었어요. 하지만 만약 수업 커리큘럼의 대부분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학습적 지원과 특별 교육이 제공됩니다.

Q5. 스웨덴의 모든 교사들은 두 과목 이상을 담당하여 가르칠 수 있나요? 혹은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복수전공이 필수인가요?

(학교장) 스웨덴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모두 두 과목을 공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음악을 먼저 공부하고, 이후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직을 이수했어요. 저는 음악과 음악 이론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 교사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두 과목을 전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물론, 예비교사들이 두 과목보다도 더 많은 과목에서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과목들에 대한 모든 교원 자격증도 유효하며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점제 시행 이후 최소 학생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한 과목만을 전공한 교사는 수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복수전공을 의무화하여 두 과목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장) 쿡스홀멘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수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언급하신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딱히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에 해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급하신 한국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겠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어요. (질문: 그럼 교원양성과정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내용이 있었나요?) (영어·독일어 교사) 기억나는 몇몇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특히 독일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저의 롤모델이에요. 제가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등...(중략) (학교장) 저는 사실 교원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대안적 루트를 타고 교사가 되었어요. 저는 음악을 공부했어서 교육학을 복수전공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직에 왔을 때 음악, 특히 기타 연주를 가르쳤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10여 년간 저를 이끌어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대학교에서 교육학 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셨죠. 음악 교사로서 제 인생에 계속 영향을 주는 한 가지는 입학하고 가진 첫 미팅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교수님께서 “너의 목표는 작은 버전의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버전의 네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수님께서서는 실제로 학생들을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연주를 했고, 모두 같이 시작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중략) 음악 교사로서, “그래, 학생들이 나처럼 소리를 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소리 내는 그들만의 방식을 강화해줘야겠다”가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영어·독일어 교사)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음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롤모델, 그리고 영감을 받는 것. 다만, 교사로서 자신만의 롤모델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2) Stockholm University (스톡홀름대학교)

(1) 기관 소개

유형	공립대학교
주소	SE-106 91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16-20-00
설립연도	1878년
학생 수	30,500명
직원 수	5,500명 (교수 515명)

본 학교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로, 스웨덴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학교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대학교 중 한 곳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과학 연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Teacher Training’이라는 전공은 예비교사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실무능력을 제공하는 철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학교의 교원양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사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방문학생으로 재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인터뷰를 하고자 한다.



[사진 6] 스톡홀름대학교 현수막 사진



[사진 7] 스톡홀름대학교 내 지도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Stockholm University
인터뷰 일시	2023년 02월 01일 (수) 16:00~17:00
인터뷰 대상	스톡홀름대학교 방문학생

박서희(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20학번)님이 방문학생으로 스웨덴에 가게 된 계기는 ‘북유럽이 교육을 유명하고, 스톡홀름 대학의 ‘과학 교육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의 유아교육’

이라는 수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업에 관심이 생겨서’라고 답했다. 또한 방문 학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싶다는 것이 박서희 님의 목표이다. 방문학생은 교환학생과 달리 학교와 개인 간의 등록이다. 즉, 교환학생의 경우 휴학 없이 한국 소속 대학에 등록 후 해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지만, 방문학생은 한국 대학에서의 휴학이 필요하며 방문학교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으로 넓은 교과 지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였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 강조될 만한 역량으로는 넓은 전공 지식을 말하였다. 이전의 큰 교육과정보다는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더 필요할 것이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생이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수능 등의 대학입시 체제가 남아있고 이것 고등학교와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불어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교육과정 변화와 함께 가르쳐야 할 내용과 평가할 내용이 배가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스웨덴 대학교 방문학생 인터뷰

Q1.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심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과목에 나오는 학습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도 뭔가를 더 얹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수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추가로 해주고 있잖아요. AI 교육, 에듀테크 활용 세미나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면으로 학교를 많이 가지만 만약에 또 이런 상황(코로나19)이 반복된다면 그때 능숙하게 수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봉사나 교육 실습도 교원양성과정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바로 학교에 투입된다기보다는 중간에 실습 과정을 만듦으로써 좀 더 실전 감각을 기르고... 바로 투입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2. 한국과 스웨덴의 교원양성과정의 어떤 점에서 다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톡홀름 대학교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스웨덴 전반적인 커리큘럼 특징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보통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학점을 정해놓아요. 예를 들어 20학점을 들어야 하면 한 수업이 2~3학점 정도 되니까 한 번에 7~10개까지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의 수업만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두 피리어드(period)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피리어드가 1월에서 3월, 두 번째 피리어드가 3월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피리어드 동안 하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피리어드에는 ‘과학 교육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유아 교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수업을 듣고 있고 두 번째 학기에는 다문화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수업만 듣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학교를 덜 가서 학업적인 여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 친구한테 “너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비는 시간에 뭐 해”라고 물어봤는데 보통 이 학교 스웨덴 학생들은 셀프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 과목씩 수강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이 과목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진득하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질문: 그럼 졸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학점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졸업 이수 학점을 다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질문: 그럼 졸업 이수 학점이 한국보다 적은 편인가요?) 사실 학점 체계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게 총 30학점을 들어요.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한 20학점 정도에 해당할 거예요. 그 말은 한 과목이 10학점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목 시수가 보통 한 주에 2시간씩 3번 정도인데 이게 18학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마 졸업 전까지 듣는 과목은 한국보다 훨씬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Q3.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과학교육과여서 과학교육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목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옛날부터 쪽 있었던 과목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의 과목들 이름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현대의 사회 이슈들이 과목명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이슈들이 과목에 직접 반영이 돼서 세미나나 아님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범대에서 들어야 하는 교직, 그런 학점들이 많잖아요. 물론 다 중요한 과목이어서 어떤 과목을 뺄 순 없겠지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Q4. 현재 4주 동안의 교육 실습과 한 학기 동안의 실습학기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현재의 8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체제나 이수학점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다면 4주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학기 동안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면 당연히 4주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학점 이수나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 같고, 또 교육 실습을 나가면 그 실습을 나가는 동안 다른 수업도 듣잖아요. 실습 스케줄과 학교 스케줄이 겹치면 제대로 못 듣고 빠져야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교생 실습이 한 학기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업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을 못 배우기 때문에 만약 현재 체제가 동일하다면 4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질문: 그럼 교생 기간 동안 놓치는 수업이 없다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실습학기제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네. 교육과정상에서 제도 보완이 된다면(학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저는 한 학기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딱 그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Q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이 교육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으며 찬성/반대 중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아직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계속 해외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걸 들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 석사 과정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사 과정이면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교원전문대학원 반대 입장도 많고 찬성 입장도... 많이 갈리는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형평성과 같은 것들에 문제만 없다면 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요.

3) Jyväskylä University (유바스쿨라대학교)

(1) 기관 소개

유형	공립대학교
주소	Seminaarinkatu 15, Jyväskylä, Finland
전화번호	+358-14-260-1211
설립연도	1953년 06월 04일
학생 수	14,000명
직원 수	2,600명 (교수 1,650명)

본 학교는 1863년 교육대학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종합대학교가 되었다. 학교의 교사교육 목표는 국제적, 국가적 가시성과 높은 과학적, 사회적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진 고품질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이며, 특히 유바스쿨라대학교는 핀란드의 최초이자 가장 큰 교사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핀란드의 학교 시스템을 보면, 교사들은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며 자신만의 가르침을 조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 커리큘럼, 높은 자격을 갖춘 학술적인 교사, 그리고 연구 기반의 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또한 모든 학급 및 과목 선생님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학교의 교원양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사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인터뷰를 하고자 한다.



[사진 8] 유바스쿨라대학교 현수막 사진



[사진 9] 유바스쿨라대학교 지도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Wilhelmiinan Konditoria Oy (카페)
인터뷰 일시	2023년 02월 01일 (수) 16:00~17:00
인터뷰 대상	유바스쿨라대학교 교환학생

한인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21학번)님이 교환학생으로 핀란드에 가게 된 계기는 '핀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이상적인 교육으로 유명하며 핀란드 학생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교환학생을 통해 선택권이 많이 보장된다는 교육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진 사람인지,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한인희 님의 목표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으로 넓은 시야, 공감, 도전 정신, 학생의 시선을 언급하였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 강조될 만한 역량으로는

다양성에 공감하는 것을 말하였다. 고교학점제에서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로 코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에서는 단순 출석이 아닌 이수율이 중요한데, 이러한 학습은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요구해도 괜찮으며,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다양성을 고려하기에 고교학점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핀란드 대학교 교환학생 인터뷰

Q1. 예비교사가 교육 현장에 투입되기 전, 교원양성과정에서 함양 및 달성되어야 하는 전문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인 교수 기술을 필수라고 생각하고, 사범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교환 학생을 와서 강의 제목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학생들을 더 복돋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범대학을 졸업해야만 갖출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제가 교육공학과 수업에서 모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하는 걸 흥미롭게 배웠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수업을 짜야 해야 할지 굉장히 막연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해서 ‘학생들의 현재 상태가 이 정도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가 이 정도라면 그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줄 수 있는가’ 그것을 교육이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했어요. 또 학생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지난 학기에 학습 경험 디자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교사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Q2. 한국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의 어떤 점에서 다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바스쿨라 대학 커리큘럼의 특징이기도 하고 핀란드 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바스쿨라 자체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유바스쿨라는 다양한 연구를 선도하는 학교예요. 특히 교육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육리더십이라는 것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교사 개인 차원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지, 교사가 조직에서 갖춰야 될 교육리더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가 사회 전체에서 갖춰야 될 교육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유명해서 ‘교육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학교’ 그리고 ‘그 커리큘럼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핀란드 대학 자체 커리큘럼의 특징은 다양한 teaching method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크게 강의를 하는 수업과 independent study로 나뉘어요. independent study는 혼자서 교수 자료를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정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서 여쭙보면 되고요. 자신이 ‘충분히 이걸 알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보고 강의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만약 시험을 봐서 학점을 얻는 것이 자신한테 맞는다면 시험을 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에세이와 같은 대체 과제가 더 잘

맞으면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도 대면과 온라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에 그룹 워크가 꼭 있는 편이에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그룹 모임에 나가는 날짜 또한 자신이 수강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강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핀란드 교육의 특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강 신청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철저히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끼리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의를 빠지는 것이 절대 안 되는데, 핀란드는 이럴 때 교수님께 미리 사정을 말하고 대체 과제를 받으면 약 두 번 정도 강의를 빠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Q3.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화여대도 최고의 사범대학이지만, 다양성 측면에 대한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핀란드의 강의 코스를 보면, ‘cultural diversity, multilingual, intercultural, antiracism’ 이런 단어가 들어간 강의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cultural diversity in education and pedagogy’라는 강의 학습 목표만 보더라도, 교육 장면에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내려는지 굉장히 고심했다는 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행동이 교육학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배우고 이를 교육학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증가로 인해 교육학의 영역에 어떤 기회가 생겼고, 그에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육 환경에 교사의 사회 정의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에 대한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교사 개인의 리더십과 정체성, 행복에 대한 교육이 한국 교원양성과정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전문적 정체성을 지니며, 교육에 종사하도록 이끄는 동기는 무엇인지... 저는 한국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교육리더십, 조직 차원의 교육리더십, 사회차원의 교육리더십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핀란드의 교사는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만족도가 낮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교육을 둘러싼 윤리적 이슈에 대한 과목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수강 신청한 강의 중에서 ‘도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강의를 있었어요. 장애 학생의 권리는 무엇인지, 주입이라는 교육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학생 개인의 권리와 그 한계는 어디인지... 저는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Q4. 현재 4주 동안의 교육 실습과 한 학기 동안의 실습학기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개인적으로 제도가 잘 정비된다면 후자(실습학기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4주의 교육 실습으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것 같은게, 제가 벌써 교환학생을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유바스쿨라 대학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고 이곳 생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교육 실습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현장에 가

면 몇 주의 적응이 필요할 텐데 4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동일한 학교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핀란드에서 재미있는 제도를 본 것이 'Erasmus in schools'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다양한 학교에 가서 일일 현장 답사를 하거나 간단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현장에 가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교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단순 참관부터 간단한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것을 자신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하나의 학기, 하나의 학교에 가야 된다고 지정하기보다는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조율해서 다양한 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Q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이 교육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으며 찬성/반대 중 어떤 입장인가요?

교육전문대학원이 어떻게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형태도 많이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마치고 석사 과정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학부를 3년을 하고 또 전문대학원을 2-3년 가는 형식,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지만 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외에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반을 논한다면 반대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까닭은 석사 과정이 추가된다고 해서 교원양성방법이나 교사의 자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또 현재 교원양성체제가 디지털 교육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디지털 교육이나 AI 교육과 같이 ICT 기술을 접목하는 교육 방안은 개인적으로 급진적으로 바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6년제를 졸업하는 동안 최신 기술이라고 읽었던 것은 이미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메타버스만 봐도 교육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굉장히 열풍이었지만, 지난 학기에 들은 강의의 교수님께서 벌써 메타버스는 이미 사양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 보다는 차라리 재교육이나 연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아가 변화하는 것을 급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불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는 곳이 사범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배울 내용을 자꾸 추가하려는 것보다 갭이어(gap year)나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교육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만난 튜터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갭이어를 통해 1년 동안 교사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후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교원양성체제는 기존 사범대학 내의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단순히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대입 위주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런 교육 개혁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교사 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교사를 원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사범대학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화여대만 하더라도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전공 학점 인정이 어려워서'인데요. 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저는 교육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포용할 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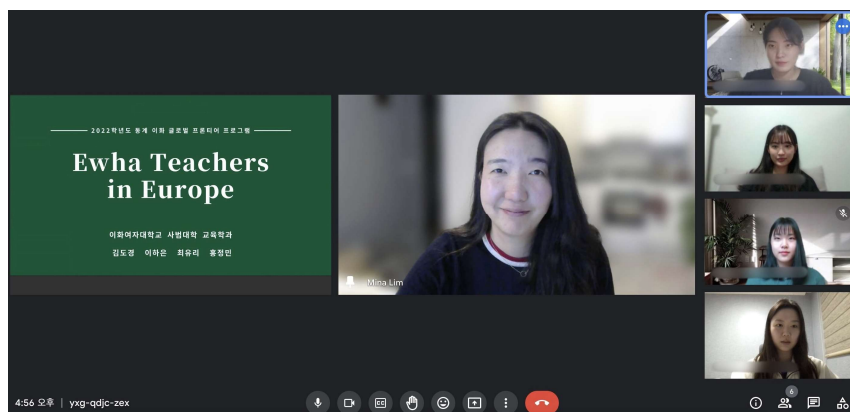
다양한 자질을 가진 교사들이 탄생할 수 있지, 단순히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 화상 인터뷰 -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1) 인물 소개

임미나 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해 한국에서 7년 동안 중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핀란드 Tampere University(탐페레 대학교)에서 Teacher Education(교사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핀란드 중장비 제조업체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며 교육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의 교육(특성화학교 학생 견학, 기술원 교육 자료 제작 등)도 담당하고 있다.

공교육·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근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현장 이해와 더불어 한국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을 모두 경험하였고, 관련 논문을 발표할 만큼 두 나라의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탐사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모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나아가 교육으로 주목받는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기대도 하고 있었기에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인 임미나 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진 10]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현수막 사진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장소	화상 회의 (Zoom)
인터뷰 일시	2023년 02월 01일 (수) 16:00~17:00
인터뷰 대상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임미나 님이 핀란드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다큐멘터리나 기사에서 핀란드와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비슷하네 핀란드 학생들은 행복해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진로나 미래와 관련해서 불행해하는 것을 보고 직접 핀란드에 가서 그 원인을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핀란드에서 공부한 결과, 핀란드의 교육 제도나 교사의 질이 한국보다 높아서라기보다는 사회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블루칼라 종사자들에게도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그 직업을 폄하하지 않으며 작업 환경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학생을 더불어 모든 사

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쟁점은 한국과 유사하게 ‘학교폭력’과 ‘코로나로 인해 학력 격차’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보다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핀란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회에서 그 당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건과 관련한 추적 기사를 내보낸다. 그 학교 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과 사건 배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추후에 그 학교와 당사자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의 경우 한국은 문제의 원인을 학교 그리고 교사라고 주장하지만, 핀란드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여기며 학교에 심리 교사를 더 투입 시키는 등 학교 자원을 이전보다 더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핀란드 학생의 수준이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특정 과목 시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사기를 꺾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핀란드는 핀란드만의 교육을 잘해오고 있다’라는 신념 아래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온전히 교육을 맡기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쟁점에 대해 대응하는 핀란드의 모습과 문제가 발생해도 핀란드만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본받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Q1.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무엇인가요? 추가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 강조되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매번 동료 선생님들과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임용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예요. 결국 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교과 관련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인내심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진학, 혹은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변화할 수도 있죠. 이 문제로 신규교사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해서 초반에 좌절을 많이 겪기도 해요. 또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바꿀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상대를 한다거나 교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째는 인내심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개발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요구되는 교사 역량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편해져요. 왜냐하면 처음엔 수업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애들 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다고 느낄 만큼 교사가 수업 준비를 안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그걸 한 번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후로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생활 지도하기도 어려워지고 교사의 권위가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가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영어만 가르쳤던 교사가 다른 과목도 가르치게 될 텐데, 교사가 스스로 본인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학교가 끝나고도 그것에 대해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을 때 학교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들한테 여러 과목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영

어 교사지만 뭔가를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도 학생들이 여러 직업 탐색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사 수급이 어려워니 학교에 있는 현직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클라이밍을 가르치라는 등 동떨어진 과목을 가르치도록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 끊임없이 교사가 자기개발을 한다면 교직 생활을 오래 하며 10개 과목도 개설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교사가 더 넓은 범위의 교과 지식을 가지도록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복수전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대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복수전공을 안 한 것이거든요. 사실 복수전공이라는 것이 학생을 위해서도 있지만, 교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교사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얻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예를 들어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했으면 회계사라는 직종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복수전공을 하다 보면 두 전공의 친구들이 생기게 될 테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떤 진로로 나아가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간접 경험이 분명 학생들 진로 교육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범대를 나와서 주위 친구들이 다 교사인데 학생들과 진로 상담하다 보면 C프로그래밍, 컴퓨팅 같이 낮은 직업들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지금 학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줘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전공이라는 방식으로 교사의 틀을 넓히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처럼 무조건 복수전공제로 두 과목 모두 임용을 준비하게 하는 건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교사가 자유롭게 두 과목을 융합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좋을지라도요. (질문: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은 복수전공이 필수가 아닌가요?) 없어요. 독일은 필수거든요. 독일은 영어 선생님이 수학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핀란드는 한 과목만 해도 돼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최소 두 개 이상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핀란드는 외국어를 많이 가르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공용 언어가 3개나 있어요.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 그러니까 이 공용어에 추가로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교사가 외국어 과목을 복수전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 러시아어도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고 이래요. 외국어는 두 개 이상.	Q2.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혹은 반대, 기대하는 부분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고교학점제를 주로 우려하는 부분이 학생들을 온전한 개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학생들 중 제대로 선택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아무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수 받지 못하고 누락될 문제가 있다’와 같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우려는 ‘학교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수업을 준비해 줄 것인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선택하는 수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선택지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답안지였어요. 결과적으로 트랙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담임 제도를 당연시하고, 한 반의 통일·단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같은 반이라고 다 똑같은 거 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반이 해체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들으러 가니까 한 반에	

계속 묶여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같은 거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인데, 막상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대부분 학생들은 결국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학생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에 맞는 서포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Q3. 한국의 사범대학 커리큘럼이 개방적이지 못하다(사회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수업 개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만약 직접 수업 개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수업을 만들고 싶은가요?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질문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핀란드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들어간 수업의 첫 논문 제목이 'lesbian teachers, gay teachers'이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내용을 핀란드에서는 정말 많이 배웠고, 교사 정체체성과 같은 많은 논문을 접했어요. 그래서 수업 제목 자체들도 'gender and education'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핫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한국 학교에 있을 때는 최신 논문보다는 이론서 중심의 수업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또 여기는 핀란드 교육을 비판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핀란드 교육도 보완해야 하는 점을 찾아서 발전해야 하니까요. 직접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면 제가 졸업한 Teacher Education(교사교육과)에서 엄청 다르다고 느낀 것 중 하나고 한국에 꼭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한 'Teacher Identity Course' 수업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교사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모호하거든요. '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교사가 교사지.' 이 수업은 내가 교직에 나가서 어떤 교사가 될 건지, 나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고 어떤 교사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앞서 말했던 'lesbian teachers and gay teachers'도 다 이 수업에 있었던 거예요. 교사라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수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교과 지식에 대해 집중하는 수업보다 이런 식으로 교사 정체성에 집중하는 수업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학교에 가서 교육 전문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건 어떤 교사로서 현장에 나아갈지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범대학 한 80%는 지식, 교육의 역사부터 전공 교과 지식, 교수법이 대부분이고 교직 수업은 일부이기 때문에 교사 정체성과 관련한 수업을 많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핀란드는 한국과 반대로 교직 수업이 대부분 학점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수업 개설한다면 교사 정체성이라는 수업으로 정말 다양한 논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성뿐만 아니라 인종, 다문화, 난민 출신 교사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도 정말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젊은 여교사의 성희롱 문제였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 발령 나시면 첫해 겪게 될 문제일 만큼 한국에서도 정말 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풀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한국 교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국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수업이 있나요?) 제가 이대에서 들은 수업 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수업은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 현장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이 거의 유일하게 현직 교사가 가르쳐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들었던 경험담과 교훈들이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 말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대학 수업에서 얼마만큼 현장 비율을 높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현장 비율이 너무 낮았고, EBS 다큐멘터리로 현장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쓴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 나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현장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알려주는 수업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이 현장도 논문으로 배웁니다. 교사들이 쓴 교사로서의 갈등, 교사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논문 소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논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핀란드 학생들이 현장 나갈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매체가 더 다양해진 것 같기는 한데, 학교 발령이 정말 복불복이라 강남 8학군일 수도 혹은 전체 학교 학생들이 옆에 있는 보육원에서 오는 학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아들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미리 본인이 어떤 선생님이 될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 임용시험에만 집중하다 보니 단단하게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모든 마주하는 상황에 엄청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 자살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처음에 애네 만났을 때 관심을 주고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었던 건가? 막을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상상한 다음에 교사가 되면 ‘그래,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모습을 계속 상상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Q4. 최근 한국에서는 기존 4주 동안 이루어지던 교육 실습을 한 학기 동안 하는 실습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실습과 실습학기제 중에서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실습학기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생 실습 한 달이 정말 짧고요, 그리고 그때가 봄이에요. 4, 5월, 아름다운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한 학기 사이클을 한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봄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면 다 진입하고 싶어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교대만 해도 실습을 네 번 나가잖아요. 1, 2, 3, 4학년 다 나가잖아요. 물론 현장에 있는 현직 교사들의 경우에는 실습학기제를 많이 반대하기도 할 거예요. 학생 케어하기도 바쁜데 실습생이 한 학기 내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또 현직 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업을 계속해서 누군가 참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진행하는 4주의 실습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만약 실습 기간이 한 학기가 된다면 현장에서 시험 출제, 수행평가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찰할 것 같아요. 또, 조회 종례하는 것도 제가 처음 발령 났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발령이 나면 누군가의 조회 종례를 참관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고, 이 아이들의 업 앤 다운이 시기별로 정말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 교사들이 찬성한다면, 실습학기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Q5. 한국에서는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원양성과정과 핀란드의 석사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육전문대학원 자체가 사실 임용 시험을 없애려는 거잖아요. 저는 임용 시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데, 교과 지식 많은 사람 뽑는다고 해서 꼭 그들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용 시험 체제 자체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이미 초·중등 임용 적체 인원도 매우 많고 제 동기 중에서도 아직 임용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경쟁률이 매우 높는데, 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한다는 건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기존 4년의 과정을 갑자기 6년으로 늘려버리는 것이니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현직 교사, 사범대학 학생들이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전문대학원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학사만 나오면 4년인데, 앞으로 선생님 되고 싶으면 6년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핀란드는 모두가 5년이에요. 선생님이라서 석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핀란드 대학 커리큘럼은 학사랑 석사가 세트라서 5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계공이 되고 싶어도, 선생님 되고 싶어도 5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과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로스쿨처럼 올인해서 추가로 더 공부해야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핀란드 교육을 평가할 때 질 높은 교사, 석사까지 마친 교사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애초에 핀란드에서는 학사 입학을 하면 석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교사의 질이 높다고 무조건 찬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사범대를 운영하면서 임용이라는 제도를 없애려고 바뀌다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6년 동안 공부해서 받는 교사의 첫 월급이 200만 원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로스쿨, 약대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사회적 지위나 보상이 주어지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임용 시험 체제를 재논의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핀란드는 임용시험이 없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 면접 보듯이 절차를 거치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사립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친구들한테 임용 시험 자체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계속 “national teachers examination, qualified 선생님을 뽑는 거야.”라고 하면 “넌 이미 qualified 됐잖아. 너는 사범대학교 4년 동안 교육과정 다 이수했고, 교사 자격증 가지고 나왔잖아.”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임용 시험이 굳이 있어야 되는 시험인가 싶기는 해요. 한국이 해외의 교육제도를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의 교육 제도가 우리 사회의 풍토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교육 정책 관련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외국에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너무 예쁘다고 꽃 대가리만 따와서 한국에 심어 놓고 왜 안 자라는지 따지는 것’이라고요. 저도 이 말에 공감했어요. 흙까지 퍼 와야 하는데, 윗부분만 뜯 떴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자유학기제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정권 바뀌면 없어질 정책이다, 그때까지만 참아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유의해서 장기적으로 한국 교육 제도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4. 종합

■ 국내탐사

갈매고등학교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특징은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헌신이 었다. 고교학점제 시행 초반에는 교사들 간의 의견충돌이 존재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간표 편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갈매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도 공강 시간 없이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원수가 적기에 가능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대체로 열정이 많고 교수학습공동체가 존재하여 교사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도 메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주변 학교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에 대한 영향인지 갈매고등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두고 있었다. 학생의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높은 수준까지 성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일종의 고문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교원양성과정에 복수전공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두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고시 과목을 현장에서 가르칠 한 과목만 선택해서 보는데, 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동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과목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재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폐강되는 과목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교사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하지 않으며 교사의 승진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갈매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생과 수업을 향한 열정도 다소 낮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해외와 다르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이것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복수전공 의무화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현재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제도적 지원이나 감축 및 분배가 제공되어야 하며 수업 시수가 부족한 교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했다.

두 학교가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사의 상담 역량이다. 이는 교생 실습과 초임 교사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으로 교원양성과정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상담은 지식 측면보다 경험이 더 유의미한 도움이 되므로 교육 실습 기간 연장이나 교원양성과정 내 멘토링 수업 개설 등의 의견으로 연결되었다. 두 학교 모두 사범대학에서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4주 교육 실습에 대해서 너무 짧다고 답했다. 대개 수업 참관을 많이 하며 4주라는 기간이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담임제와 관련해서도 두 학교 모두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학급 경영 업무를 외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두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두 학교 모두 외부 강사를 활용하며 교원 수급은 수업 시수가 남은 교사가 다른 과목을 함께 담당하는 형태였다. 차이가 있다면, 갈매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교양 과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동북고등학교에서는 오랫동안 한 과목만 가르치던 교사가 교원양성과정에서 타 과목을 복수전공을 했

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해외탐사

1) 스웨덴 고등학교

스웨덴 교사들에 의하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스웨덴 사회가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교사는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 지식과 교수법 등을 갖추어야 한다. 여전히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스웨덴 교사들은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교사공동체를 형성해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방식 등에 관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의 미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용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쿡스홀멘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과 직업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두 과목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교사들이 교원양성과정 관련 답변으로 교육 현장에 투입되기 전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자신만의 롤모델을 창조하여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히 교과 지식을 얻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교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에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수시 전형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교내 활동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성적만이 대학 입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교사들의 평가가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수능과 같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또한 스웨덴 교사는 일정 시기마다 학교를 옮길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교사들은 학습 환경이 우수한 학교에 배치된다. 반대로 학생들의 입결이 낮은 학교의 경우 교육 수준이 지속하여 하락하게 되며 학교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다시 말해, 학생과의 경쟁이 아닌 학교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스웨덴 교육의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의 교사 순환 근무제가 학교 간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스웨덴·핀란드 교원양성과정(교환·방문 학생)

스웨덴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한 학기에 듣는 과목의 수이다. 한국의 경우 한 학기에 듣는 과목의 수가 7~10개지만, 스웨덴은 주로 한 학기에 하나의 수업만 듣는다. 하나의 수업이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이루어지는 건데, 한국의 학점으로 계산해보면 한 수업당 20학점 정도가 된다. 즉, 졸업 이수 학점은 비슷하지만 졸업 전까지 듣는 과목의 수는 한국보다 스웨덴이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하나의 과목만 수강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웨덴 학생들은 수업이 없을 때 혹은 여유가 생겼을 때 셀프 스터디를 진행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강의명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 과목의 이름에 ‘지속 가능성’, ‘다양성’ 등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이슈와 ‘교육리더십’, ‘교사 정체성’과 같이 교사를 주체로 한 키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학생이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업을 들을 것인지, 혼

자 공부할 것인지, 수업을 듣는다면 대면으로 수강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것인지, 평가 또한 시험과 에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철저히 책임을 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한국의 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핀란드에는 'Erasmus in school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일일 현장 답사를 하거나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방문하고 싶은 학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4주 혹은 한 학기 동안 한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학에 가기 전 갭이어(gap year)를 통해 미리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경험한 후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고교학점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갭이어는 주로 중등교육을 끝내고 고등교육을 받을 예정인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핀란드 교사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자

한국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임미나 님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원양성 과정은 물론 교육과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교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핀란드는 별도의 평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미 교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범대학 커리큘럼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한국은 전공 교과 지식과 교수법 등 전문 지식을 키우는 수업의 비중이 크다. 반면 핀란드는 전문 지식보다 교육심리, 교육사회, 특수교육 등 교직 과목의 비중이 크다. 그중에서도 교사 정체성이라는 교직 수업이 존재하여 현장에 투입되기 전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논문을 읽으며 성, 인종, 다문화, 난민 출신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 주제들에 대해 개방적인 토론을 자주 진행한다. 그리고 젊은 여교사의 성희롱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다룸으로써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핀란드 사범대학의 교원양성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사범대학은 여전히 교과 지식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현대 사회의 이슈를 수업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보수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교원양성과정의 복수전공 의무화, 실습학기제, 교육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해 임미나 님은 핀란드에서는 복수전공이 필수가 아니며 외국어 과목 전공자들만 주로 복수전공을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수전공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기개발과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습학기제 또한 수업 참관 외의 다양한 활동(조회, 종례, 시험 출제, 수행평가 진행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핀란드는 모든 대학 커리큘럼이 학사와 석사를 함께 진행하여 총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사라는 직업만을 위해 학생들이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임용을 위한 시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임용고시를 없애려는 시도 자체는 좋지만, 기존 임용 적체 인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Ⅲ. 결론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를 예비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한국 고교학점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이를 평가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제인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본 팀은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외 탐사를 진행하였다. 탐사주제는 ‘고교학점제에서의 도입이 한국 교원양성과정에서 주는 시사점(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며, 우리나라와는 차별화된 해외 학교 교육 및 교원양성과정과 교사의 전문성 및 노력을 직접 탐사해보음으로써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양성과정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제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탐사목표로 하였다. 탐사는 2023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간(9박 12일) 이루어졌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하여 탐방하였다.

기관 탐사와 인터뷰를 통해 본 팀이 얻은 의견을 종합해보면, 교원양성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수업 개설·예비교사의 상담 역량 함양·복수전공 및 석사 과정 실시로 정리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수업 개설

현재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 필요한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했을 때, 모든 탐사 기관에서 공통으로 답변이 나왔던 것은 ‘혁신적인 수업 개설’ 혹은 ‘사회 이슈를 반영한 수업 개설’이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 수업에서 ‘교사 정체성’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통해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립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해당 교사들은 자신의 롤모델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작은 버전의 롤모델이 아닌 큰 버전의 내가 되는 것’, 그리고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교원양성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Teacher Identity Course’라는 수업에서는 교직에 나가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교사라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갈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은 주로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정체성과 관련한 수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핀란드는 한국과 반대로 교직 수업이 대부분의 학점을 차지하며 해당 강의해서는 성, 인종, 다문화, 난민 출신 교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lesbian teachers, gay teachers’를 주제로 한 논문을 읽고 학생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교사 성희롱’ 등과 같은 문제는 한국에서도 흔한 사례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 혹은 주제들과 관련하여 논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끊임없이 핀란드 교육을 비판하며 보완할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발전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현재의 사회 이슈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수업들도 많았다. 특히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수업이 많았는데,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학생은 방문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이를 뽑았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교육과정으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없고 새로 개설되는 경우도 적은데, 스웨덴 교원양성과정의 강의는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 현대 사회 이슈를 과목명에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핀란드 유바스쿨라대학교의 교환학생도 ‘도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강의를 들으며, 장애 학생의 권리는 무엇이고 학생 개인의 권리와 그 한계는 어디인지, 주입이라는 교육의 역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등 교육을 둘러싼 윤리적 이슈에 대한 과목을 보고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다. ‘다양성’을 주제로 한 수업도 많이 존재한다. 핀란드 유바스쿨라대학교의 강의를 보면 ‘cultural diversity, multilingual, intercultural, antiracism’ 등의 단어가 들어간 강의가 많으며, 학습 목표를 통해 교육 장면에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내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행동이 교육학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배우고 교육학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 증가로 교육학의 영역에 어떤 기회가 생겼고, 그에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이론적으로 실용적인 지식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사회 정의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등을 학습 목표로 한다.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을 보면 교직보다 전공 지식 학습의 비율이 더 높으며, 주체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사가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해외의 교원양성과정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 예비교사의 전문성과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교사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직 생활에 익숙해지면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자기능력개발을 멈추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현장에서도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는 것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윤리적 이슈와 현대 사회 이슈를 다룸으로써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이 교사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직과목 중 예비교사에게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없지만,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습 목표와 커리큘럼 차원에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예비교사의 상담 역량 함양

국내 사전조사에 따르면, 예비교사와 신규교사가 생각하는 교원양성과정과 교육 현장 간의 괴리는 학생 지도 및 상담에서 온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과의 진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생활 지도 측면의 역할이 커지지만, 현재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수업 비중 적고 현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고교학점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속해있는 반이라는 소속감은 점점 사라지게 될 텐데, 이는 사회성 및 공감 능력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반이라는 통일성과 단합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비교사의 상담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성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 학기 동안 교육 실습을 진행하는 ‘실습학기제’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실습학기제는 현장 이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2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4주간의 교육 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고 손님처럼 왔다가는 이벤트성의 실습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교육 실습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학기로 확대하는 실습학기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예비교사의 전문성에 도움이 되며 특히 상담 역량은 경험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은 실습학기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이후 교육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교원양성과정에서의 현장 경험은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한 학기 동안 다른 과목은 어떻게 수강할 것인가’와 ‘현직 교사들의 업무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점이 작용한다.

실습학기제에 찬성의 입장을 보인 인터뷰 대상자들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했다. 첫 번째로 교육 실습을 하는 학기에 수강하는 다른 과목에 대한 보장성이다. 현재 4주의 교육실습을 살펴보면, 실습을 나가는 4주 동안은 약 6~9개의 과목을 듣지 못한 채 출석 인정이 된다. 이때 성적은 대체 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주 동안 실습에 참여하면서 혼자 논문 등을 읽는 등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존재한다. 만약 실습학기제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나머지 수업을 픽업픽업 수강하거나 아예 수강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다. 수업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수업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수강을 못 한다는 것은 졸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늦어짐을 의미한다. 현직 교사들의 업무 증가와 관련해서는 4주 동안 있었던 실습생이 한 학기 동안 있게 되니까 원래 존재하던 행정 업무, 교과 업무 등을 포함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가 실습생을 비서처럼 쓰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 학기 동안 단 하나의 학교에 머물게 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핀란드 사범대학 학생들은 ‘Erasmus in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만큼, 다양한 학교에 방문하여 일일 현장 답사를 진행하거나 간단한 수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사범대학의 교환학생들을 초청하여 출신 나라를 소개하는 수업도 이루어진다.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학교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하고 싶은 활동(수업 참관, 상담, 생기부 작성, 시험 출제 등)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실습학기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복수전공 및 석사 과정 실시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교사들이 그만큼 많은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설된 과목의 교사를 선정할 때, 외부 강사가 아닌 학교 내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교육학이 존재한다면,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교육학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가 배정받는다. 대부분의 교사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문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인기가 줄어드는 과목의 교사들은 수업 시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교원양성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했다면 다른 교과의 교사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징으로 인해 예비교사의 복수전공 의무화가 논의되

고 있다.

해외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스웨덴은 복수전공이 필수이며 핀란드는 필수가 아니지만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복수전공을 한다. 고교학점제에서의 복수전공은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교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교사 이외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을 때 복수전공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전공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진로가 다 다르다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줄 때 이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복수전공 의무화가 아닌 자율 선택이 되어야 하며, 임용고시를 응시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전문성, 두 과목의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하는 부담감 등과 같은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이 사회에 대두되면서,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전문대학원은 쉽게 말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석사과정을 이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교육의 전달자인 교사의 양성과정을 6년으로 늘려 더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은 좋은 정책일지도 모른다. 다만, 교육의 주체인 (예비)교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임용고시 적체 인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임용고시의 유무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만약 계속 존재한다면, 6년 동안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시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임용고시가 없어진다면, 현재 재학 중인 교·사대 학생들 및 교직 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2~3년의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상’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로스쿨이나 약학대학과 같이 특수성을 가지며 다른 학과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이 로스쿨·약학대학과 다른 점은 ‘졸업 후 현장에서 받는 임금’일 것이다. 보통 긴 양성과정을 가지는 학과의 특징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전문대학원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사가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한 임금을 받아 로스쿨·약학대학과 같은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교사들은 6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사회에 나가서 초봉 기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모든 교사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또한 높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 교육전문대학원을 가져온 것인데,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석사과정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영문학과나 기계공학과 등 다른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석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한국의 다양한 교육 정책들은 비교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의 사례를 많이 반영한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해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 비교교육을 통한 정책 도입의 핵심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정서·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제해야 할 것이다. ‘예쁘게 핀 꽃의 대가리만 가져와 놓고, 꽃이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맥락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7.11.27.).
- 교육부(202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 보도자료(2021.8.23.).
- 교육부(2021).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21.02.16.).
- 교육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교육부 보도자료(2023.01.05.).
- 교육플러스(2021). 교육실습 4주→6개월, 실습학기제 도입...교원단체 “교원 증원 동반해야”.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검색일: 2023.02.05.).
- 글짓는 스웨덴 부부(2017). 스웨덴 교사의 월급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https://brunch.co.kr/@education/21>(검색일: 2022.09.07.).
- 글짓는 스웨덴 부부(2017). 스웨덴에는 왜 교사가 부족할까?. <https://brunch.co.kr/@education/22>(검색일: 2023.02.05.).
- 글짓는 스웨덴 부부(2017). 한국교사, 스웨덴 교육을 마주하다. <https://brunch.co.kr/@education/13>(검색일: 2023.02.05.).
- 김나라·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김란주·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113-138.
- 김상훈(2017). 핀란드 학교 내 인력의 역할과 기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6285>(검색일: 2022.09.07.).
- 김선영(2021).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반영 및 제시 방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22), 693-713.
- 김소희(2020). 한국과 핀란드의 중등교사 양성제도 비교 :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김영은·노은희·김진숙·이광상·이영미·양영자(2021). 고교학점제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에 대한 해외 사례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ORM 2021-40-3), 1-35.
- 김영은·노은희·김진숙·이광상·이영미·양영자(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리포트 2021).
- 김영은·주형미(2021). 고등학교 학점제 적용 국가의 졸업제도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4(3), 1-26.
- 김홍겸·오현정(2019).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개선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11-139.
- 동아일보(2022). “스웨덴 교육은 자기계발 도구…‘입시지옥’없지만 교육질 저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6/116164299/1>(검색일: 2023.02.05.).
- 박주현·서경혜(2021).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과목선택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연구논총, 42(4), 91-112.

- 백병부·엄수정·배정현(2021). 연구학교로 본 고교학점제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공주·박찬호(2019). 핀란드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특징 분석. 비교교육연구, 29(6), 27-54.
- 서울교육(2017).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으로 실현된 핀란드의 교육자치제도. <https://webzine-serii.re.kr/단위학교와-교사의-자율성으로-실현된-핀란드의-교/>(검색일: 2023.02.04.).
- 왕보경(2021). [세계의 교육은?]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행복교육' -②덴마크.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9>(검색일: 2022.09.07.).
- 이광수·김명수·김도기(2012).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2), 217-236.
- 이명애·박혜영·성경희·변태진·김성혜·김영은·임해미(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평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8-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연·이광우·권점례·백경선·배화순·전호재·김소희(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동교육과정개선 방안 탐색 (연구보고 RRC 202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2008).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연수 북유럽 평생교육 관련자료(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임태섭·송지연·이승훈·(2017). [신맹모삼천지교]4부:해외서배운다-핀란드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705000338>(검색일: 2022.09.07.).
- 장수빈·김성원(2021). 고교학점제 담론에서의 해외 국가 참조 패턴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4(2), 1-22.
- 조보경·김진숙·이민형(2021). 고교학점제에 대한 해외 인식조사: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6), 249-274.
- 주주자·김위정(2018). 고교 학점제 해외사례 연구 (이슈페이퍼 2018-02). 경기도교육연구원.
- 최상덕(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한국교육개발원.
- 최수정·전영옥·류지은·이은표·고귀영·서예린(2017). 호주와 핀란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점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7(6), 191-210.
- 행복한교육(2018). 핀란드의 교사 양성과 신규채용 제도 혁신 사례.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8320&bbsId=BSMSTR_000000000216(검색일: 2023.02.04.).
- 황은희(201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19-05), 1-300.